

저지종 젓소 육성 본격화

임실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임실군이 고품질 치즈 생산을 위해 맛이 좋고 영양분이 월등한 젓소 품종인 저지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최근 '저지종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축산경제연구원과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소장 정석근), 임실치즈농협(대표 이창식)의 공동계약에 따라 이뤄졌다.

수행 목적은 저지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임실군의 낙농산업 여건 분석과 정책 방향 제시 등이다. 용역계약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1,000만원과 치즈농협 2,000만원 공동출연으로 맺어졌으며, 기간은 6개

월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연구진들은 임실군에서 저지종 육성을 위한 환경 분석, 전략체계 및 로드맵을 구축한다. 또한, 지방소멸기금을 이용한 저지종 전문 목장 등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저지종 젓소 관련 기초자료 조사와 환경분석, 특허된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세부 발전 전략을 제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국립축산과학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과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군은

낙농산업과 유가공 분야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내 치즈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저지종은 얼룩 젓소인 홀스타인종보다 우수 생산량은 적지만 우수 단백질과 지방, 고품질 함량이 매우 높아 치즈의 풍미가 뛰어나 뿐 아니라 수율도 높아 원유량에 비해 치즈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저지종을 통한 고품질 치즈 생산을 위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대표브랜드인 치즈 산업을 전구적으로 확산, 보급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저지종 수정란 보급을 통하여 고품질의 치즈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맛이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저지종 젓소를 육성하여 치즈 산업의 고품질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지난 22일 '2024년 남원시 양성평등기금' 6개 단체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전년도 대비 2배 증액했다.

2024년 양성평등 기금 증액

최경식 남원시장 "양성평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남원시가 22일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남원시 양성평등기금' 6개 단체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전년도 대비 2배 증액했다.

단체 선정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공모해, 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공익성 △실행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보조금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단체와 사업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가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

육 및 동화를 통해 배우는 성인지 감수성 바로알리기 △사랑방마을교육공동체의 나·나·나 리더양성 등 총 6개 사업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은 물론 지역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점차적으로 기금지원 확대에 여성들이 역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경천변 일원서 벚꽃축제 개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새하얀 벚꽃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순창 육촌골 벚꽃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순창읍 경천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주최하고 육촌골벚꽃축제 제정위원회(회장 나

현주)가 주관하는 축제로 봄을 상징하는 화려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천변을 따라 약 1.4km에 걸쳐 펼쳐진 벚꽃 길은 순창의 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하여 방문객들에게 눈부신 장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축제는 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벚꽃과 개나리가 어우러진 경관 조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축제의 개막일인 28일은 즉석 노래 자랑으로 시작되어, 유튜브 공연, 최우정 예술단의 공연, 군민 노래자랑 예선전으로 이어져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다음날인 29일에는 순창 생활예술동호회의 공연으로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고, 오후 7시 40분부터는 기념식과 함께 반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한소민과 나은하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봄밤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벚꽃 나들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화려한 봄꽃의 향연을 만끽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속에 스며드는 문화, 예술 활동 제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30일부터 시작되는 벚꽃축제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맨손 장어잡기와 색소폰 공연, 난타 페스티벌, 정해진 공연, 그리고 미술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읍 경천변 일원 벚꽃길 풍경. (사진=순창군청 제공)

남원,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남원시는 2024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

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남원시는 작년에 1만1천67농가에게 66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농업(임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 이상)하는 농가와 양봉농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가 해당되며, 접수 후 2022년 기준 농업의 중

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 등 적정여부를 검토 후 최종 선정되면 농가당 6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청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기간에 미 접수되면 지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 중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2023년부터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하였으나 증가하는 악성·반복민원에 대한 신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공격 등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팀장급 이상 적급개입 또는 법적 조치 결정 등 단호한 대처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이번엔 실시한 훈련은, 민원인과 상담 도중 폭언과 폭행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 대응요령을 익히는 훈련으로 폭언 중단 요청, 녹음고지, 폭행 제지, 안전비상벨 호출, 민원인 대피 등 훈련을 실천처럼 실시했다. 특히, 민원 공무원이 폭력 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연결, 각 지구대에서 출동하도록 시스템이 연계



돼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군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날 안에 휴대용 캠코더를 읍·면당 2대씩 배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신규공무원들이 민원응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안심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임업직불금 신청 4월 1일~4월 30까지접수

임실군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https://pay.fcom.go.kr)' 통합 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복지과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기센터, 곤충 사육 전문인력 양성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국내 식용 곤충에 대한 이론학습과 곤충농가 방문을 통해 교육생들의 곤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 사육기술 습득 등 곤충 사육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농생방 바이오(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 신청을 받아 현재 10회 교육 중 3회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에 처음 개설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이 올해도 많은 관심 덕분에 모집이 빠르게 마감됐다. 현재 남원시는 곤충산업의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중이다. 곤충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써 여러 분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곤충 농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